

성삼 후 22주일 (연중 30주일) 감사성찬례

집전/설교: 최바우로 신부 보혈조력: 정스테반 지휘/선창: 김니콜라 반주: 정모니카
실시간 동영상 오전 11시 www.youtube.com/성공회 산본교회

개회예식

†입당성가 457장 다 함 께
†정심(淨心)기도 6쪽 집 전 자
†죄의고백 6쪽 다 함 께
†기원송가 거룩하신 하느님 (9쪽) 다 함 께

말씀의 전례

†본 기 도 집 전 자
주 하느님, 주님은 눈 먼 이들을 보게 하시고 연약한 이들에게 힘을 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진리에 눈 뜨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 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1독서 예레 31:7-9 말 은 이
성 시 시편 126편 다 함 께



- 주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풀어 주시던 |날,
○ 꿈이든가 |생시든-이가!
 - 그 날 우리의 입에서는 함박 같은 웃음 |터지고
○ 흥겨운 노랫가락 |입술에 |흘렀도-이다.
 -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 |하셨으니
○ 우리는 얼마나 |기뻐|던-이가.
 - 주여, 저 네꺽 강바닥에 물길 |들어오|듯이
○ 우리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 |오|소서.
 - 눈물을 흘리며 |씨뿌|리는 |자,
○ 기뻐|하며 |거두|어들|이리-라.
 - 씨를 |담아 |들고 |올며 |내가|는 |자,
○ 곡식|단을 |안고|서 |노랫|소리 |흥|겹|게 |들|어|오리|라.
- ◎ 영광이 |성부와 ○ 성자와 |성령 |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 그리고 |영원|히, |아- |멘

2독서 히브 7:23-28 말 은 이
†복음환호송 말 은 이
†복음서 마르 10:46-52 말 은 이

설교 바우로 신부
니케아신경 16쪽 다 함 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말 은 이

성찬의 전례

†평화의 인사 22쪽 다 함 께
†봉헌성가 428장 다 함 께
성찬기도 23쪽 1 양 식
거룩하시다 102쪽(C곡) 다 함 께
주의기도 28쪽 다 함 께
성체나눔 29쪽 다 함 께
하느님의 어린양 ... 105쪽(C곡) 다 함 께
성체성가 361장 성 가 대
†영성체후기도 41쪽 다 함 께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소식 신 자 회 장

파송예식

†축복기도 42쪽 집 전 자
†파송성가 492장 다 함 께
(†는 일어섬)

	이번 주일(10월 27일)	다음 주일(11월 3일)
1독서	허훈제	윤희진
2독서	조성산	유정훈
대 도	김운권	정연창
다음주일 전례독서	이사 25:6-9 시편 24 묵시 21:1-6상 요한 11:32-44	
성 가	269 656 624 654	
복 사	정선우	보혈조력 정연창
다음주간 교회청소	<5조> 정국진 이숙영 정연창 박순호	

(1997-2024 / 교회설립 27주년)



성공회 산본교회

St. Clare's Anglican Church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21, 청진빌딩 7층 ☎ 031-397-0443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

2024년 10월 27일 성삼 후 22주일 (연중 30주일) · 나해 · 녹색

제28-43호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주님의 물음에 예리고의 소경 바르티매오는 “선생님, 제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라고 대답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는, 소원을 성취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느님의 자비를 믿고 우리의 현실을 정직하게 내어 맡기는 일입니다.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르티매오의 믿음이 바로 그런 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가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과연 예수님께 무엇을 청하려합니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면서 큰 소리로 외칠 절박한 간구가 마음에 있는지요? 지금 정말 어찌할 수 없어 보이는 심각한 곤경에 처했는지라도 하느님께서 여전히 자비를 베푸시

리라는 것을 믿습니까? 불필요한 허황된 것들을 구하지 않고 진짜 내게 필요한 것, 내 삶의 가장 절박한 문제를 정직하게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 육신의 나약함, 생활의 어려움은 어찌면 은총의 선물이라 해야 할 것들입니다. 하느님 없이 교만하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하느님 앞에서 정직한 인생으로 자비를 구하며 살아가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님께 정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맡겨드리고 주님의 자비를 구한다.”는 것이 하나의 훌륭한 답일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가 주님의 자비로 이루어지는 일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자비를 누리는 사람들이고, 그 자비를 세상을 향해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교구장 김장환(엘리아) 주교 / 관할사제 최용준(바우로) 신부
신자회장 최용욱(어거스틴) / 사제회장 김운권(베네딕트) / 원로회장 한명숙(올리야나)

모든 성인의 날 (11월 1일) All Saint's Day

11월 1일은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입니다. 초대 교회 이래로 성인들을 기념하는 일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교회는 순교자들, 증거자, 주교와 성직자, 동정녀, 교회학자, 수도자와 선교사 등 거룩한 삶을 살았던 이들을 성인으로 공경하며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 날을 축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순교하였지만 알려지지 않았거나, 남모르게 한평생 거룩한 삶을 산 이들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성인들, 곧 "하느님만이 그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익명의 성인들에 대한 공경도 마땅한 일이므로 4세기 안티오키아에서는 성령강림 후 첫 번째 주일에 "모든 성인의 날"이 기념되었습니다.

609년, 교황 보니파스 4세는 고대 로마의 만신전(萬神殿)을 축성하여 성모 마리아와 모든 성인들에게 봉헌하며 5월 3일을 모든 성인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후 8세기에는 영국에서 추수기인 11월 1일에 '모든 성인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날인 11월 2일은 '모든 별세자의 날'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릅니다.

"모든 성인의 날"은 매우 기쁜 축제일로서 서양의 대부분 그리스도교 국가가 이날을 국가 공휴일로 지낼 정도이고 오늘날 미국의 대표적 어린이 축제인 10월 31일 '할로윈'(Halloween)이 바로 이 날의 전야제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형제자매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모든 인간이 자체로 존엄한 존재임을 확인하려는 것이 모든 성인의 날 축일이요 할로윈 축제의 목적입니다.**

"모든 성인의 날"은 성인들과 더불어 **세례명을 가진 우리 모든 이의 축일**이기도 합니다. 이 날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모든 성인들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의 거룩한 삶을 본받기를 기원하며, 우리도 또한 언젠가 그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희망하며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천사가 될 수는 없지만 성인(聖人)이 될 수는 있습니다. 성인(聖人)이 되는 일은 온전히 하느님의 은총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일이므로 그 노력은 교만한 일이 아니라 도리어 가장 겸손한 일이며 우리 모두가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외울 말씀 22

야훼여, 당신께서는 나를 환히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

교회소식

■ 전례와 사목

◆ 전례 곡조

성삼후절기(연중절기) 동안 전례곡조는 C곡입니다.

◆ 모든 성인의 날 (다음 주일)

다음 주일(11월 3일)은 모든 성인의 날 축일로 지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삶을 봉헌한 성인들을 되새기고, 세례명을 가진 모든 이를 축복합니다.

■ 알림

◆ 모든 교우의 날(축성기념주일) · 추수감사주일

11월 10일(주일) 오전 11시

교회설립 27주년, 교회 축성 12주년을 기념하며 가족 총동원주일로 지킵니다. 모두 초대해 주세요.

◆ 산본교회 교회위원회 워크숍

11월 3일(다음 주일) 오후 1시 40분

교회 선교를 위한 워크숍에 모든 교회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교회위원회 포함)

◆ 소그룹 모임 / 청년회 · 학생회 모임

오늘(10월 27일) 애찬 후 각 모임을 진행합니다.

◆ 수요 성서공부

금주일은 성직자 연피정으로 쉽니다.

◆ 안양권역(산본, 안산, 안양) 직분자 세미나

오늘(10월 27일) 오후 2시~5시 / 안양교회

강사: 이종양 자급사제(도봉교회)

직분을 맡은 모든 교회위원, 단체장이 대상입니다.

◆ 서울교구 성직자 연례 피정

10월 28일(월)~31일(목) / 성 앵베르 센터(은평구)

■ 교우 소식

◆ 생일을 축하합니다

박종례(28일) 김소라(30일) 정연창(1일)

이진봉, 이윤상(2일)

◆ 떡 나눔 감사합니다

조준행신부/이은경(자녀 성산 & 승현 혼배감사)

지난주일 봉헌 내역

■ **십일조 · 월정헌금** 750,000원
김준우/조장은 박종례 최용욱/윤희진 최자연

■ **주일헌금** 209,000원
고미순 권순호 류한신 신동홍 이윤식 임혜지
장성환 장재현 장태현 채희영 최순덕

■ **감사헌금** 125,000원
조준행신부(건강) 최하현(학업)
함로렌스수사(방문/설교)

■ **특별헌금** 40,000원
류한신/이민녀(몽골숲) 최용준신부/백기은(아론)

〈 성공회 산본교회 봉헌 안내 〉
신한 100-033-428656 대한성공회 산본교회

◆ 주간전례독서 (10월 28일~11월 2일 / 연중 30주간)

	독서	복음
28일(월)	에페 2:19-22	요한 15:17-27
29일(화)	에페 5:21-33	루가 13:18-21
30일(수)	에페 6:1-9	루가 13:22-30
31일(목)	에페 6:10-20	루가 13:31-35
1일(금)	묵시 21:1-6상	요한 11:32-44
2일(토)	로마 5:5-11	요한 5:19-25

✧ 기도해 주세요 ✧

◆ 우리교회를 기억하며

- 주일을 잘 지키는 신앙공동체 (예배하는 사람)
-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 새교우를 환대하는 교회가 되기 바라며

◆ 고3 수험생을 위하여 (수능일 11월 14일)

이동우 미카엘

◆ 어려운 교우와 환우 교우를 위하여

강영욱 권영분 기필순 김길자 김승숙 김옥현
박종례 박순호 안병순 임광호 이성중 이연학
유군상 유정환 조준행 신부 정시원 채희발 한명숙

◆ 해외 체류

김보미 조민규 조이준 이형석 디아나 이주안
임인택 방유미 이은가